

〈주〉럭키건업

金淵相 사장



내오염성(耐汚染性)뿐만 아니라 유지보수가 손쉬워 세계적으로도 크게 각광을 받고 있어 차세대 내외장재로 주목을 받고 있는 제품.

이 제품의 주성분인 세라믹스는 당사 계열사인 (주)세라믹하이텍에서 개발한 세라믹 2100이라는 뉴 세라믹 계열제품으로 세라믹스는 불에 타지 않고 무기질이어서 오염과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특수성 때문에 그 응용범위가 매우 넓은 제품이다. 이것을 럭키건업이 국내 최초로 건축자재로 이용한 것이다. 신소재 건축외장재인 이 제품을 럭키건업이 처음으로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은 건축자재로 한우물을 판 그들만의 깊은 전통과 역량이 뒷받침해주었기 때문이다.

◇

〈주〉럭키건업은 2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건축자재 전문제조업체이다.

플라스틱·건축·창호자재를 전담으로 판매하는 '럭키 하이샷시 판매주식회사'를 비롯 '럭키실리콘 쉘라트 주식회사'와 (주)세라믹하이텍 등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럭키건업(회장 : 金又庚)은 특히 주택자재의 현대화, 패션화, 고급화를 실현함으로써 국내 건설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왔다.

최근엔 「CERAMIC HI-TECH PANEL」이라는 건축용 내외장재인 신제품을 개발하여 그들의 존재를 재확인시킨 바 있다. 이 세라믹 하이텍패널은 어떠한 기후에도 견디어 내는 내후성(耐候性), 먼지의 흡착을 방지하는

전문경영인에 전권넘겨

기업의 설립목적이 너무나도 뚜렷한 럭키건업의 김우경회장은 독실한 기독교인이다. 취재를 나갔던 그 날도 김회장은 필리핀 선교활동으로 부재중이었다. 신앙으로 가득한 그의 방안 십자가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남자들도 해내기 힘들다는 거친 분야이지만 생계수단으로 뛰어들지 어언 20년. 이제 건축자재분야에선 제법 베테랑으로 통하는 김회장은 작년에 모든 직(職)을 사퇴하고 전문경영인에게 경영권을 넘겼다.

자본가가 경영일선에서 벗어나 전문

건축자재 전문제조업체로

20년 전통을 자랑하는

(주)럭키건업은

최근 「세라믹 하이텍 패널」이라는

건축용 내외장재인

신제품을 개발,

각광을 받고 있다.

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기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로 특히 럭키건설과 같은 중소기업체로서는 특이할만하다. 그러나 김회장은 이번 아니라 자본권과 경영권을 철저히 분류시켜 '투명한 기업상'을 이룩하는데 몸소 실천해 왔다. 럭키건설의 전문경영권을 맡게 된 김연상사장은 김회장은 여성이지만 한번 결정한 뒤에는 결코 뒤돌아 보지 않는 과감한 결단력을 지닌 분이라고 표현했다.

역시 신앙인인 김사장은 럭키건설이 하나님의 기업인 만큼 기업의 목표는 분명하다고 전하며 "기업의 이익은 하나님 선교사업에 우선해야 하며 그 다음으로 사원들의 복지후생, 그리고 사회환원"이라고 기업관을 설명했다.

실제로 김사장은 주식의 10%를 사원 복지기금으로 적립할 만큼 사원의 복지후생에 관심을 가져 사우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한층 고취시킴으로써 럭키건설을 더욱 뜨거운 사랑으로 뭉쳐질 수 있도록 하였다.

1년만에 매출신장 100%

김연상사장은 전문경영인으로서 기존의 수직적 조직체계를 수평적 조직체계로 의사결정 단계를 대폭 수정하여 업무의 효율을 꾀하기도 했는데 경영 1년만에 100% 이상이라는 높은 매출신장률을 보여 주는 수완을 발휘했다.

이는 12단계나 되는 의사결정단계를 단 4단계로 줄임으로써 과거 중간경영부분의 수직적 결정라인을 탈피한 그룹별 팀장 시스템으로 탈바꿈하여 개인의 능력과 책임하에 '선(先)처리 후(後)보고' 하는 책임제를 실현하고 있다. 또한 94년에는 경영방침으로 신속하고, 질적·양적 향상을 위해 3Q (Quality, Quantity, Quickly) 슬로건을 내걸고 기업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20년이 가깝도록 건축자재만을 고집해온 터라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특히 한창 건설붐을 타던 88년도에는 럭키하이사시의 대대적인 홍보로 창조자재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준비가 턱없이 미비했을 뿐더러 심각한 인력난까지 겹쳐 제때에 제품을 납품하지 못해 회사신용이 크게 떨어졌다고 한다. 이 때 김사장은 회사 이미지의 회복을 위해 거래처에 대대적인 사과공문을 띄워 보내기 시작했는데 김사장의 사내직통전화번호는 물론이고 카폰과 자택전화번호까지 기입해 손해를 끼친 거래처에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위기를 면한 적이 있다고 술회했다.

전사원이 새벽5시 출근

당시 럭키건설은 "새벽을 깨우는 조용한 개혁"이란 미명아래 회의가 진행되었는데 새벽5시에 열린 이 회의에선 사원에게 회사의 경영방침을 다시 한번 숙지시켜 혼연일체가 될 것을 다짐했고, 그후 모든 거래처에 대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는 것을 경험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에 다시 새벽 5시 출근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전사원에게 새벽출근을 통해 바빠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인생에 있어 새로운 동기를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 한다.

공사 하나 따내기 위해 목포까지 한걸음에 달려나가는 김사장과 회사의 회로애락에 동참하는 사원들은 땀의 결실을 얻었을 때에 서로 하나 되어 눈물을

흘린 경험도 있었다고 한다.

90년대 초 일본의 건축자재 신제품을 보면서 이번 신소재 세라믹하이텍을 구상했다는 김사장.

(주)세라믹하이텍에선 김포검단에 30억을 투자, 1천2백평 규모의 공장을 설립하여 작년부터 생산체계를 완비하여 월 생산량 30만개로 연간 매출액 2백6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한국전력 태안화력발전소 건축 외장재로 세라믹하이텍판넬이 사용되었고 현대건설사옥에도 이 제품이 시공될 예정이어서 이미 품질로 인정을 받고 있는 터라 내년엔 더욱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이 이익만을 추구하는 게 목적이라면 유통업을 하지, 힘든 제조업을 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땀 흘려 노력한 만큼 댓가를 얻고 인류사에 공헌한다는 취지에 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라고 김사장은 럭키건설의 존재이유를 피력했다.

하정실<본지 객원기자>



◇1200평 규모의 김포검단공장전경